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종말을 향하는 피역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빛이 나고 그리스도들에게는 더욱 힘이 될 줄 깨닫고 하서서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며 마지막 복음전파에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이다 (호세아 14:2)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77호 2012년 3월 24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제 2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카운트다운

4월 17일(화)-20일(금) 금란교회, 쉐라톤워커히 호텔

본지가 매년 주최하는 세계한인 목회자 및 평신도지도자 세미나가 올해로 27회를 맞아 이번에는 한국에서 개최된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Take His Word, Return to the Lord!)란 주제로 금란교회(김홍도 목사)(숙소 쉐라톤워커히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목회자와 평신도지도자 및 선교사, 사역자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시는 종전대로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 주 4월 17일(화)부터 20일(금)까지 열린다.

한국 개최는 지난 2007년에 이어 5년 만에 갖는 것으로 모국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저렴한 항공료와 세미나 후 연결되는 캄보디아 관광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매년 본 세미나를 최 일선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발행인 장영준 목사는 “특히 어렵고 힘든 이민 목회나 작은 규모의 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참여해 도전받고 활력을 얻는 것을 보면 힘들었던 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다음 세미나를 구상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올해는 특히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한국에 계신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많이 참석해주시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에 계신 분들은 쉐라톤 호텔에 숙박하시면서 편안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다”고 소개했다.



사진은 지난해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제 26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참석자들이 세미나 둘째날 기념촬영 했다

개했다.

본 세미나는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 및 평신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바쁜 교회생활과 목회전략을 배우고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기독교 신앙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게 됨으로 포스트모던시대를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과 지역 교회들에게 종교다원주의와 뉴에이지 사상,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종말론적 영적 능력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강의를 맡은 강사들은 오랜 목회의 노하우를 전할 목회자들과 세대교체를 이룬 후 교회를 더 단단히 세우고 있는 2세대 목회자들이 대거 강의에 참여했다. 이들의 주옥같은 강의는 참석 목회자들과 평신도지도자에게 큰 도전과 아울러 많은 정보를 줄 것이다.

본 세미나는 아침 식사 후 경건회를 시작으로 저녁 연합집회까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강의가 이어

진다. 주 강사로는 김홍도 목사(금란교회 목사),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담임),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담임)가 초청됐으며 황의영, 천성덕, 김기원, 조일래, 송용길, 이영섭, 이정현, 김승욱, 홍민기, 조일구, 김규동, 송규식 목사 등이 강의하게 된다.

등록비는 목회자(사모 포함) 200달러, 평신도지도자 250달러이며 이 비용은 3박4일 숙식과 교재비가 모두 포함된다.

(3면으로 계속)



2면

“고등교육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7면

특별기고
김기원 목사(장위제일교회)



13면

이슬람 뉴스



14면

인터뷰
김태은 선교사



교회가 이용할 수 있는 혜택 5가지 클라우드 컴퓨팅

UMC, 온라인 하드 저장기술, 클라우드
교회사역 실제원리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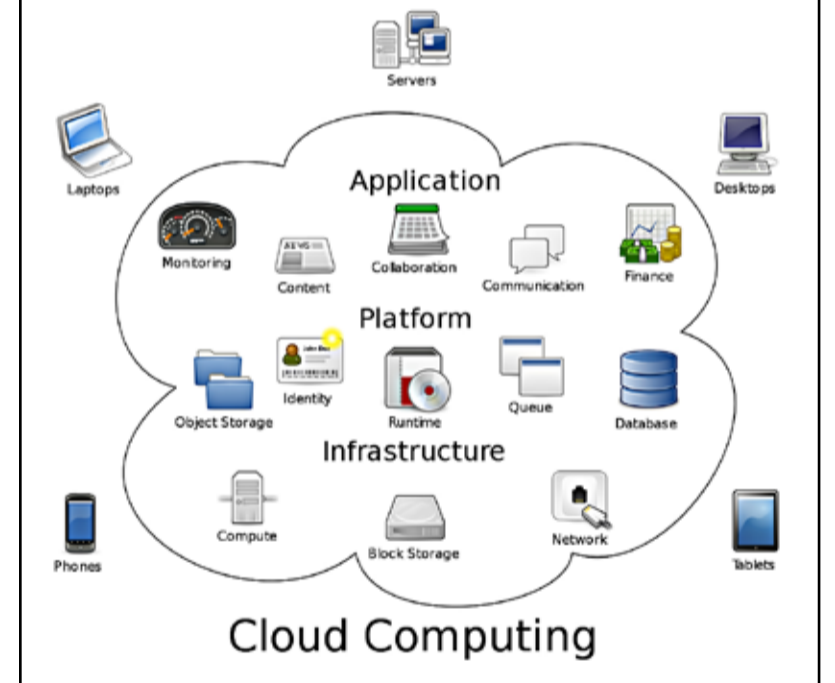
클라우드(cloud)라는 단어는 한때 단순히 스텔모양의 수증기 입자 덩어리를 의미했다. 하지만 오늘날 테크놀로지의 세계에서 이 단어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 서버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한 방식이다. 어느 교회에서나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든 사진, 음악, 영상물, 문서에 접속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술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다.

1. 사진 저장과 편집

집에서 작업하면서 지난 교회 야외회 때 찍었던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거나, 교회 소식지에 사진을 첨가하고 싶었던 적이 있는가? 몇 가지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한 사진 저장과 편집 서비스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Photobucket은 이용자들이 사진을 저장하고, 서로 공유하며, 편집할 수 있고, 무제한 업로드를 제공하는 무료 사이트이다. 이용자들은 슬라이드와 플래시도 만들 수 있다. Shutterfly도 무료 이면서 무제한 사진 저장이 가능하며 정리와 편집 기능도 선택할 수 있다. 이 두 사이트 모두 인화된 사진을 우편으로 받거나 근처 직영 상점에서 찾을 수 있는 옵션도 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36회 총회 등록 안내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36th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제36회 총회준비위원회

- 위원장 박희근 목사 (917) 254-0887
- 부위원장 조성득 목사 (646) 243-1702
- 서기 오요셉 목사 (646) 660-3858
- 회계 허민수 목사 (201) 654-1023
- 서무분과 오요셉 목사 (646) 660-3858
- 오상권 목사
- 김도균 목사
- 등록분과 이상만 목사 (201) 403-4711
- 이영기 목사
- 김영일 목사
- 재정분과 허민수 목사 (201) 654-1023
- 이욱주 목사
- 박정수 장로
- 정진운 장로
- 박성운 장로
- 호텔분과 장기수 목사 (848) 482-0691
- 지정일 목사
- 김기대 목사
- 예배분과 조문휘 목사 (845) 598-6757
- 조영길 목사
- 황상하 목사
- 최은진 목사
- 교통분과 이길호 목사 (718) 309-3376
- 홍중주 목사
- 강원호 목사
- 박흥구 목사
- 채영준 목사
- 차석희 목사
- 관광분과 이규섭 목사 (718) 672-1150
- 박희열 목사
- 강항욱 목사
- 정재훈 목사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총대 제위께 문안드립니다.
제36회 총회에 참석하시는 총대를 위한 호텔예약 일정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총회일시: **주후 2012년 5월 22일 (화) - 5월 25일 (금)** / 3박 4일
- 장 소: **쉐라톤 호텔** - (201) 896-0500 / www.sheraton.com
2 Meadowlands Plaza, East Rutherford, NJ 07073
- 숙식비: 총회기간의 숙식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는 미화(USD) 입니다.

객실구분	등록마감일 및 참가비		
	1차(2월 15일까지)	2차(3월 15일까지)	3차(4월 15일까지)
1인1실	750	800	850
2인1실	1인	390	440
	부부	750	800
원로/공로	1인	320	370
	부부	640	740

- 개인숙식: 개인적으로 숙소를 정하시고 총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등록비 \$150을 납부하셔야 하며, 호텔에서 식사하실 경우에는 추가로 식비 \$170을 납부하시거나 식권을 구매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하셔야 합니다.
- 총회에 하루 일직 오실 분이나, 폐회 후 하루 늦게 가실 분들은 등록신청서 알려 주십시오.

- 등록 및 송금안내: 등록신청서와 송금은 반송봉투를 사용하여주시고 반드시 check 또는 money order로 해 주십시오. (미국 외에서 등록하시는 분은 US money order로 우송바랍니다.)

수취인 (pay to the order of) : ENYP of KAPC
주소: Rev. Minsoo Hur (허민수 목사)
Open Door Faithful Covenant Church of NJ
480 Warwick Ave. Teaneck, NJ 07666
(201) 886-2384 (H), (201) 654-1023@

- 영어노회 총대를 위하여 동시통역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마감일(4월15일) 이후 신청시 호텔 숙박은 준비위원회에서 보장해 드릴 수 없습니다.
- 등록하신 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호텔과의 계약상 등록비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교통안내: 총회 준비위원회에서 다수의 차량을 배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차량운행을 위해 반드시 항공편과 시간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이길호 목사/교통분과장, 718-309-3376)

총회에 참석하시는 총대제위께서는 Newark Liberty International Airport (EWR)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욕의 La Guardia (LGA) 공항이나 Kennedy (JFK) 공항을 이용하실 경우 공항픽업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첫째 날(5월22일) 접수는 오후2시부터, 저녁식사는 오후5시부터, 개회예배는 오후 7시입니다.
- 주차는 무료이며, 인터넷은 각 방에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GYM과 수영장도 있으며, 준비위원회에서 탁구대를 설치하겠습니다. (www.sheraton.com 참조).
- 사모 세미나와 특별관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pac2012@hotmail.com) 문의처: 등록: 이상만 목사 (201, 403, 4711), 기 타: 오요셉 목사 (646, 660, 3858) / 199-03 32th Ave., Bayside, NY 11358 (718) 352-0237 / (646) 660-3858 / e-mail : kpac2012@hotmail.com, kpac2012@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강기봉 목사, 서기 송성섭 목사



시론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는가?



양준길 목사 (뉴저지 펠그립교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실제로 이민 와서 살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자녀교육을 말합니다.

프란시스 베이커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거미와 같은 사람, 개미와 같은 사람,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미는 다른 곤충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 거미줄을 쳐놓고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기다리다가 먹이가 걸려들면 쩍썩하게 나가서 영양분을 다 빨아 먹습니다.

다른 일은 특별히 하는 것 없이 다른 곤충이 걸려들기만 기다리다가 해치는 것이 거미입니다. 개미는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개미들이 파놓은 땅굴을 보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해서 먹이 양식을 쌓아 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누어 먹는 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개미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꿀벌이 있습니다. 그들은 개미와 같이 부지런히 일합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꿀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꾼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도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미와 같은 사람, 열심히 일하면서 살지만 자기 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개미와 같은 사람, 열심히 일해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꿀벌과 같이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바로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눅10장). 어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기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강도를 만나 가지고 있던 물건을 다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각기 피하여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강도는 바로 거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이득으로 삼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결국에는 강도와 같이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는 거미와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기가 공부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쳐보고 좋은 성적을 얻으려는 학생들,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상인들, 주어진 권력을 악용하여 자신의 재산을 늘려가는 정치인들... 모두가 자신의 진실한 노력이 없이 잘 살아보려는 강도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개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지만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종교인이 되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결국 자기 자신의 안전과 행복만을 위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놔두면 반드시 죽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여 피하여 지나가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이야 어찌되든지 나는 내가 챙겨야 할 것을 먼저 챙기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어려움과 고통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혼자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으로서 인종차별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장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기의 시간과 정성, 물질과 사랑을 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어두움을 밝혀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가?”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부모, 어른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미래의 모습은 오늘 우리 부모 자신들의 모습에서 먼저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눈에 비쳐진 우리들의 모습은 거미, 개미, 꿀벌 이 셋 중에 어느 것과 가깝습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되어 진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고등교육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CT, 미국 대학교육이 놓치고 있는 결정적 단점 보도

일반적으로 대학의 목적은 학문을 갈고 닦으며 지성을 연마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가 대학에 들어와 얼마나 공부를 잘 할 수 있는가였다. 한 마디로 학생의 '지적 능력'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 이러한 문화가 오늘날까지 지속돼 대입 경쟁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성' 즉, '지적 능력'이며 이러한 능력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어지는 '시험의 점수'로 굳어지게 됐다.

그러나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이제 대학은 더 이상 지성인들의 집단이 아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학문을 연마하며 지성을 갈고 닦는 '지성의 전당'이나 '상아탑'이 아니다. 우리의 대학은 이제 거의 모든 고교생들이 입학해 졸업하는 보편 교육, 일반교육 기관이 돼버렸다. 그리하여 대학 교육의 목표는 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만을 모아 전

공 영역에서의 높은 학문적 업적을 내게 하는 전문 교육의 성격만으로는 적합하지 않게 됐다. 한마디로, 미국 대학은 전문적인 영역만을 위한 실력자나 기술자만을 양성하는 학원으로 전락하게 됐다.

크리스천투데이(Christianity Today, CT)는 최근 미국 고등교육 즉 대학교육이 방관하고 무시하고 있는 영역 즉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학문이 아닌 지혜를 함양하고 전수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기독교 대학들이 일반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우수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설립자들의 이념에 가깝게 근접해 미국 고등교육의 장래를 책임져야 한다고 보도했다(The Missing Factor in Higher Education: How Christian universities are unique, and how they can stay that way).

1876년 길먼(D. C. Gilman) 즉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초대 총장을 지낸 그는 “미국 대학들이 인격을 만들어 온전한 사람을 양성시키는 것”을 상실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나 점점 더 세속화의 물결은 대학에서 지혜나 인격보다는 실력과 전문적인 지식만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1862년에 제정된 “모릴 법안”(The Morrill Act)은 이제 주 정부에서 대학들을 세우고 교육을 책임지게 하자, 세속화의 물결은 완전히 미국 대학교육을 잠식시켰다. 남북전쟁 전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대학들은 미국 대학교육의 90%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대학생들 중 73% 이상은 교회나 교회 관련 사립 대학이 아닌 공립이나 주립 대학을 다니고 있다.

교육 정책의 주도권이 이처럼 주 정부로 이양되자, 고등교육 영역에서는 근본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1. 주 정부 기관이나 정치가들은 대학들이 온전하게 전인 교육을 받고 지혜로운 인간이 아닌 단순한 기술 전문가들이나 시민을 양성하기를 기대했다.

2. 주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대학들에서는 전인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다.

미국 고등교육이 실용주의와 세속주의에 따라 단순하게 전문적인 기술자와 시민만을 양성하고 있을 때,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된 대학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보스턴으로 이주해 온 지 불과 16년 만에 세워진 하버드 대학은 현재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 시에 있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립대학으로 자리하고 있다. 영국에서 뉴잉글랜드로 이주해 온 청교도들이 상륙하면서 설립된 이 대학은 교문에 새겨진 글귀와 같이 “학문을 발전시켜, 이것을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남겨주어 장래 교회에 문맹인 목사가 임명되는 안 된다”라는 신념 아래 설립됐다. 여기에서 하버드 대학의 설립이념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현명해지기 위해 학교로 와서 공부하라”는 것이 하버드 대학의 모토였다.

기독교대학 존재 이유는 인생살이의 지혜 습득 지혜 발견 지름길은 기독교적 실천과 가치 확대

이처럼 처음 개척자들은 종교적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였으므로, 그들의 교육적 필요는 종교를 지키고 계승·발전토록 하는데 있었다. 초기의 교육은 초등학교로는 종교색채가 짙은 부인경영학교(dame school), 교구학교(parochial school), 습자학교(writing school), 자선학교(charity school) 등의 교회 중심의 학교가 설립됐고, 중등학교로는 라틴어학교(latin grammar school)와 실용교과를 중시하는 아카데미가 있었고, 대학을 세워 지혜와 신앙을 계승, 발전시키려고 했다. 따라서 하버드(1636), 예일(1701), 프린스턴(1746), 펜실베이

니아(1753), 컬럼비아(1754), 브라운(1764), 럿거스(1766), 다트머스(1769) 등이 오늘날의 아이비리그, 즉 고전연구와 목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됐다. 미국의 고등교육의 목적은 따라서 산업화 이후 다양하게 분화된 현대 사회에서 자칫하면 편협한 기능인으로 전락하기 쉬운 학생들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전 영역에 대한 이해를 지닌 교양인으로 키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럽에 일기 시작한 계몽주의와 인본주의 발달로 인해 대학에서 지혜가 아닌 이성 즉 학문을 가르쳐야하기에, 독일은 이성과 손

을 잡았다. 다시 말해서 전인 교육이 아닌 지식을 전수하고 전달받는, 한 역사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빈 차에 개스를 가득 채우는 일”로 대학 교육은 강등돼버렸다.

들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육성하는 차별성을 강조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편집국장: 유원정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폴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을 병행함)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진다면 가능
3.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3.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교육)
3. 수시 입학이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1면에서 계속)

한국 현지에서 등록하면 50달러만 내면 된다(식사와 교재비). 이 같은 저렴한 비용은 금관교회 후원으로 가능하게 됐다.

본 세미나는 12회 호주 시드니, 13회 미국 필라델피아, 14회 일본 오사카, 15회 한국 서울, 16회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개최했으며 지난 10년간의 개최장소 및 주제는 다음과 같다.

- 17회: 미국 휴스턴, “기독교의 종말론적 도전과 목회자의 사명”
- 18회: 한국 서울, “21세기를 이끄는 기도목회”
- 19회: 미국 LA,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 20회: 일본 동경, “교육이 바로되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세계가 변한다”
- 21회: 캐나다 밴쿠버, “미래를 준비하는 바른 목회와 그 비전”

- 22회: 한국 서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이다”
- 23회: 미국 하와이, “교회부흥과 목회자의 역할”
- 24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변한다”
- 25회: 케냐 나이로비, “이 시대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 26회: 미국 라스베이거스,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유원정 기자)

새소망 칼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평강(平康, Peace)은 평화란 뜻이고 평안(平安, Shalom)도 평화란 뜻이다. 평화(平和, Peace)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생활에 있어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완전한 이상적 충족상태를 의미한다. 모든 평화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사45:7) 따라서 평화의 상태는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한다(민6:26, 대상23:25). 그러기에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으로 묘사되었다(롬15:33, 고후13:11, 빌4:9, 히13:20).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군사적 경제적 건강상태가 개인의 생활과 신체적 정신적 영적 평안을 충족시켜 주어 편안하게 해준 행복과 같은 것이다. 그러기에 건강을 회복하고 경제적 안정과 영적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평화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한다(사38:17).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단을 묶은 황금 다발이다.

매튜 헨리는 “평화는 너무나 값진 보석과 같아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진실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내놓겠다”고 하였다. 우리도 나 자신의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체면과 자존심 물질적 손실 등,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바란다. 진정한 평안과 축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욥기서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22:21)고 하였다. 평강의 복, 평화의 복, 평안의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은 교회 생활의 화목으로 가능하다. 교인이 교회생활을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거나 마음을 열지 않거나 마음속에서 불평불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한 평화의 축복은 오지 않는다.

빅토르 위고의 단편 중에 “93”이라는 작품이 있다. 배가 폭풍을 만났다. 선창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 배는 선창에 대포를 실어 수송하고 있었던 것이다. 배가 큰 풍파에 시달려 대포를 묶었던 쇠사슬이 끊어진 것이다. 몇 명의 선원들이 결사적으로 선창에 내려가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를 붙잡는다. 작가는 이 배를 인간에 비유하고 있다. 사실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서 오는 풍파가 아니고 배 안에서 사슬이 끊겨 굴러다니는 대포인 것이다. 그것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성냄과 교만과 원수 맺음과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불순종과 반항과 거역의 대포이다. 성도가 바로 믿고 바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참 행복을 누리려면 이런 대포들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려야 한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옛날 영화의 제목은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을 잘 드러낸 말이다. 교회에서 누가 미워도 다시 한 번 용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보스턴에서 목회하는 콘타트 박사가 라디오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담을 소개했다. 한 교인이 그를 끈질기게 10년 동안 괴롭혔다. 그 교인은 사사건건 목사를 반대하고, 트집을 잡았다. 그러다가 이 교인이 서부로 이사했는데, 무슨 동기인지 그는 목사에게 자신이 행한 지금까지의 행동을 사과한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콘타트 박사는 너무 기뻐서 즉시 이런 전보를 쳤다. “용서했음. 잊어버렸음. 영원히”(Forgiven, Forgotten, Forever) 이 세 개의 F가 너와 나,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다. 용서와 평화는 사랑에서 출발한다. 용서는 자기반성에서 출발한다. 평화를 회복하려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면 평화가 넘치는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사랑과 용서는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증오, 불행과 절망을 희망과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사랑과 용서는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힘이 있다. 사랑과 용서는 인생을 성공시키는 힘이 있다. 영국의 시인이며 소설가인 “로버트 스티븐슨”은 이 세상에서 “자주 웃고 많이 용서하고 많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의 주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한다(살후3:16).

교회가 이용할 수 있는 혜택 5가지 클라우드 컴퓨팅

(1면에서 계속)

2. 음악 저장

아직도 CD나 카세트테이프, 음악앨범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음악을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이 기능은 아주 적절하다. 한 곳에서만 음악을 저장하거나 접속할 수 있어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다(단 그 음악이 하드 디스크 형태인 경우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 디지털화해야 한다).

Amazon Cloud Drive와 Cloud Player에서는 음악을 저장하거나 저장해놓은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무료로 5GB를 제공하고, 일년에 20달러를 내면 20GB 저장 용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마존(Amazon)을 통해 구입한 MP3 음악은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저장용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무료로 저장할 수 있다. 구글(Google) Music에서는 이용자들에게 2만 개의 음악까지 무료로 업로드를 할 수

있지만, 이들 중 구글 뮤직을 통해 구입한 음악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컴퓨터로 내려 받을 수 없는 제약이 있다.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아이튠즈와 다른 음악 파일들을 백업한다.

3. 영상물 저장과 편집

사진과 음악의 경우처럼 클라우드 기술을 통한 영상물 저장은 큰 용량의 영상물을 DVD에 따로 담아 저장하거나 컴퓨터의 저장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 특별히 영상물 저장과 편집만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인 WeVideo는 이용자들이 모바일 폰이나 비디오카메라로 찍은 영상 파일을 올리거나 음악, 애니메이션 효과 등을 편집해 넣을 수 있게 해준다.

무료 혜택은 1GB 저장용량이다. 한 달에 6.99달러 이상 내면 더 많은 저장용량과 기능을 제공받는다. 영상물 업로드와 저장, 공유로 가장 인기 있는 유튜브(YouTube)에서

는 YouTube Video Editor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음악을 넣고, 영상을 정리하거나 화면 전환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해 영상물의 질을 더 높일 수 있게 해준다.

4. 일반 저장

특정한 용도의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있는 반면, 모든 유형의 파일들을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많다. 이 서비스들은 간단하거나 다중 사용자 사용이 필요한 교회에 아주 적합하다.

예를 들어 Dropbox는 이용자에게 문서, 사진, 영상물들은 물론 많은 유형의 파일들을 2GB까지 무료로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무료 서비스이다. 더 많은 저장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한 달에 9.99달러부터 시작된다. 다른 무료 서비스인 iDrive에서는 5GB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파일들을 자동으로 백업한다. 더 많은 저장용량을 제공하는 옵션은 한 달에 4.95달러부터 시작된다.

5. 문서 작성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12가지의 능력과 태도를 제시했다:

- ①지식 ②지적 관심 ③예술적 감성력 ④문화에 대한 관용 ⑤지도력 ⑥대인관계 능력 ⑦사회적 책임과 시민의식 ⑧신체적, 심리적 건강 ⑨직업능력 ⑩적응력과 생활기술 ⑪인내력 ⑫윤리의식

기독교 사립대학들은 중심으로, 35개 대학 관계자들은 학생들이 이러한 능력과 태도를 지니도록 가르치는 것이 미국 대학 교육의 주요 목표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과 특성은 졸업 이후의 성인적 삶에서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간 특성이므로, 이것은 대학교육의 목표이면서도 동시에 고교교육의 목표가 되어 하며 대학은 가급적 이러한 능력이 많이 지니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결론으로, 미국 고등교육은 반드시 지혜는 구원처럼 은혜의 선물로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진리를 항상 인정해야 한다. 성경은 지혜는 특별히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함양된다고 선포한다(잠1장, 고전 1:30, 골2:2-3, 야1:5).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최고의 지름길은 바로 기독교적 실천과 가치를 펼침으로서 얻어지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대학 교수들은 더 이상 기술이나 지식을 전수하는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는데서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학문의 방법이나 세계관을 일러줘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 대학들은 대학의 설립 이념에 부합한 세계관과 가치를, 실제로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이자 교수로서 살아가는 인재들을 등용해 학생들에게 무엇이 우선 순위인지를 가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는 사람들을 배출시켜야만 한다.

“고등교육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1면에서 계속)

기독교 사립대학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이념만이 아닌 실제에 있어서도 기독교 대학들은 다음과 같은 5 가지 영역들에서 도덕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1. 교직원들의 태도
 - 2. 교과 과정에 있어 성경, 신학 그리고 윤리 과목 편성
 - 3. 성격 형성이나 도덕적 태도 함양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
 - 4. 재학생들의 도덕적 사고
 - 5. 도덕 교육에 대한 졸업생들의 견해들
- 이처럼 가톨릭이나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 75%의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도덕 함양과 육성이 바로 고등교육에서 핵심적 요소라고 응답한다. 따라서 모든 복음주의 대학교들은 성경, 신학, 윤리 등이 과목으로 배정돼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대학들은 심지어 윤리 강좌를 편성하지 않고 있다.
- 그러나 기독교 대학들도 일반 공립대학들과의 경쟁을 의식해 자신들이 가진 고유한 영역과 이념을 뒤로하고, 사회가 기대하는 바로 선로를 선택시킬 유혹을 받고 있다. 먼저 기독교 대학의 대항화이다. 대학의 대항화는 기독교적 정체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대학 행정과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위험이 높다. 결국 기독교대학의 생존 전략은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 명문대학이 되기 위해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자기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 그렇다면 분명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전공분야가 나누는데 어떻게 전 영역에 대한 이해 즉 도덕적 특성을 전공 과목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 최근 미국의 35개 대학의 관계자들이 미국의 장래를 위해 대학들이

제31차 김기홍 장로 초청 미주 춘계 간증성회 안내



해군 중앙교회 장로, 전 해병대 부 사령관, 예비역 해병소장 **전 한국 해병대 부사령관이시며 기적과 축복의 삶을 체험한 믿음의 장군, 김기홍 장로님을 초청하여 제31차 미주 춘계 간증성회를 갖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 시 〉
2012년 4월 12일 ~ 6월 10일



강사 : 김기홍 장로

- 약 력**
- 1964 해군 사관학교 18기 졸업, 해병소위 임관
 - 1966/1-68/1 월남전 참전(해병 청룡부대) 월남 짜빈동 작전지휘 (중위) 전 중대원 일제급 특진 (신화를 남긴 해병의 전설적 명예창조) 충무무공훈장, 월남 업송 무공훈장 수훈, 한국/미국 대통령 부대표장
 - 1970/10 진해 가덕도 침투작전 소탕작전 수행
 - 1984/8-86/1 해병 2사단 5연대장(대령)
 - 1990/1-91/1 해병 제2훈련 단장(준장)
 - 1991/1-93/12 해병대 부사령관(소장)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졸업
 - 목원대학교 교수
 - 국내외 3700여회 성회 인도

※집회를 원하시는 교회는 (02)842-3313로 연락 바랍니다.
● 웹사이트 : www.kimkihong.com

제31차 김기홍 장로 초청 미주 춘계 간증성회 일정

일 시	교 회	담임목사	지 역
4월12일(목)~4월15일(주일)	라이프 크릭 교회	양성일	WI
4월18일(수)	지구촌교회	김두환	NJ
4월19일(목)~4월22일(주일)	미드 허드슨 연합감리교회	진영인	NY
4월24일(화)~4월26일(목)	퀸즈 침례교회	박진아	NY
4월27일(금)~4월28일(토)	온누리 드림교회	이근호	VA
5월 3일(목)~5월 6일(주일)	온누리 교회	김영한	TX
5월10일(목)~5월13일(주일)	오렌지 힐 교회	백향오	CA
5월15일(화)~5월16일(수)	산샘교회	윤석영	CA
5월17일(목)~5월20일(주일)	갯스윌 연합교회	이희철	CA
5월25일(금)~5월27일(주일)	생수의 강 선교교회	안동주	CA
5월31일(목)~6월 3일(주일)	샌디애고 사랑교회	박병섭	CA
6월 7일(목)~6월10일(주일)	오렌지 가나안장로교회	김인철	CA

간증성회문의처

▶ ●서울 : 김기홍 장로(02)842-3313 ● 셀폰 (010)8929-4333 ● 팩스(02)848-3315 ● 미주 (551)655-4224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시간 관리

지난 16일 아이패드 전국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화회사인 V회사에 의하면 기존 3G보다 10배나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로 연결됨은 물론 전 세계의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수집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며칠전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을 핸드

폰 전화에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개통한지 3초도 되지 않아 후회에 사는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고는 그 빠른 시간에 멀리 있는 친구와 접할 수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빠르게 흐르는 시간을 어느 노인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울고 웃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가고, 내가 꿈을 꾸고 이야기하던 청년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 같더니, 장년에 도달하여 능력을 과시할 즈음에 이르니 시간은 구름처럼 날아가 버렸고 흰 머리의 노인이 되어 시간이 전부 지나가버린 것을 알았다" 라고 말합니다.

비단 노인의 말이 아니더라도 참으로 살 같이 빠른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간은 금이라도 표현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의 젊은 시절 일화입니다. 그가 일하는 서점에 한 사람이 책을 사러왔습니다. "이 책 얼마예요?" "예, 3불입니다." "책값을 조금만 깎아주세요." 그런데 주인은 "이 책 지금 사시려면 3불50센트입니다." "아니, 왜 깎아

달라는데 올림니까?" "지금 시간을 소모하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금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시간은 소중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몇 년 전 이야기지만 미국의 시간관리 전문가인 마이클 포티너는 수백 명을 대상으로 사람들의 시간을 사용을 조사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사람들이 평균72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잠자는 데 23년을 사용하게 되며, 직장에서 일하는데 20년, 쉬면서 즐기는데 7년, 먹고 마시는데 6년, 출서거나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는데 3년, 물건을 찾는데 특히 여성들이 핸드백 뒤지고 그 물건 찾는데 3년, 가사 일에 4년, 전화기 불통이 있는데 1년을 보낸다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내는 시간은 평균 일평생에 다 합쳐서 1년6개월이라는 통계를 내어 놓았습니다.

'인 타임'이란 영화는 시간이 화폐인 충격적인 미래를 다룬 영화입니다. 커피 4분, 버스요금 2시간, 스포츠카 59년 등 모든 인간은 25세가 되면 노화를 멈추고 잔여시간 1년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 시간으로 사람들은 음식을 사고 버스를 타고 집세를 내는 등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시간으로 지불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진 시간을 다 써버려 시계가 '0'이 되는 순간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때문에 부자들은 몇 세대에 걸쳐 시간을 갖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가난한 자들은 하루를 겨우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노동으로 사거나, 누군가에게 빌리거나, 그도

아니면 훔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돈으로 거래되는 인간의 수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자주인공 윌 살라스는 어느 날 100년의 시간을 가진 부자에게 우연히 도움을 주고 그의 시간을 대가로 받게 되지만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살라스는 훔쳐간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 부자들의 동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살인범으로 체포되어 가지고 있던 시간을 빼앗기고 도망자가 되지만 인질인 여주인공과 함께 시간을 되찾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준다는 내용입니다.

시간을 돈으로 비유한 영화이지만 시간의 소중함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까?

푸/ 른/ 초/ 장

이춘준 목사
(창대교회)



스위스 정신과 의사인 폴 투니어(Paul Tournier)는 '서로를 이해하는 법'이란 책에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비판과 충고라고 합니다. 비판이나 충고보다는 '잘 하였다' 또는 ' 훌륭하다'는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응당 갖추어야 할 모든 점은 소유하고 있다든지 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충분히 이행하였을 때 비로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행이 가나버움이란 곳에 가셨을 때, 로마 군대 100명을 거느린 장교가 예수님께 뛰어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니이다"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사랑을 지닌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으로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단지 자신의 집에서 하인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 찾아오는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인은 그

의 표현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사랑의 표현이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전13:2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하였으며 13:13에 "그러한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의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 다. 모든 윤리적인 선행이 다

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불변의 신앙이라야 합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하였습니다. 이때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내도 부하가 있으니 가라하면 가고 오라하면 옵니다.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라고 답합니다. 이는 "예수님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이런 그의 고백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자세는 밤새워 고기 잡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은 후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였을 때에 감히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도 내 고백이 낫겠습니다"라는 백부장의 고백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자세와 똑같은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내가 어찌 감히 머리를 들고 주 앞에 서리이까?"라고 고백하는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백부장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에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상징입니다. '내가 사는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네 아들을 바쳐라.'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절대적 순종을 하였습니다. 순종하는 자세로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을 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 순종함으로 심계명을 생활에 옮길 수 있다면 그 믿음은 훌륭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순종이란 단순히 지적인 긍정만이 아니라 행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백부장의 순종처럼 군대 정신과 같은 절대 복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요한 칼빈은 "성서를 떠나서 신앙을 논하는 자는 광란증 환자"라고 하였습니다. 성서의 기록에 대한 복종과 더불어 그 성서의 내용이 생활에 구체적으로 옮겨지는 믿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성경을 보는 눈은 돌입니다. 하나는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 구절 구절 분석하여 보려는 비판적인 눈조리와 아무런 학문적인 연구나 접근 없이 무조건 믿는 맹종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 둘 모두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리한 눈조리로 성서를 보면서 그 밑바탕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성서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개신교의 특징은 성서 메시지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살펴본 백부장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마태복음 8장 5-13절

당시 그 생병까지도 주인에게 매어 있던 때인데, 이 로마 장교는 그의 하인을 위하여 친히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식민지국가의 하인을 위하여는 백부장의 태도는 훌륭합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신의 하인을 예수님께 부탁하면 낫게 될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인의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그 아픔을 예수님께 고하는 그의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표현이며 자신의 하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

신앙적일 수는 없으나 신앙적인 내용은 반드시 윤리적인 선행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백부장은 다른 민족이며 자신의 종인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께 와서 그의 치료를 간구하였다는 사실은 그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의 현실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명사로 이해되기보다는 동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인의 고난에 동참한 주인의 사랑! 이 같은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 믿음이라고 보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어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변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때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병들지 않는 믿음, 건강하든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 합니다.

백부장은 주님을 역지로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서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 다.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의 말은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다.

백부장은 절대 순종하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도 군인인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가라하면 가야하고 오라하면 와야 합니다. 나도 부하들이 있어 제가 명령하면 그대로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그의 신앙고백은 군대식 신앙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경험되는 실증적인 신앙입니다. 군대 세계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명령이 있을 때 복종의 길밖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은 세상이 테러의 공포로 떨고 있다. 글로벌 테러의 시대가 돌입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테러의 위협으로 부터 안전한 지대는 없어졌다. 지난 20일 프랑스 남부에서 유대인 학교에서 테러 공격으로 교사 1명과 어린이 3명이 죽임을 당했다. 이 사건은 지난 주간부터 계속된 3건의 테러 살인사건의 연장이었다. 이제 어린 아이들도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을 받았다.

테러리즘이란 무엇인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테러리즘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로, 정부가 국민을 향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상부 테러리즘이 있다. 상부 테러리즘은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간다. 1930년대의 아돌프 히틀러의 독일 민족의 우수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6

통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사단적인 전략이다. 그래서 그 대상이 피해자 당사자 뿐 아니라 피해자를 바라보는 온 세계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목적이 있다. 지금의 세계는 야만의 시대처럼 사람들이 마음 놓고 여행할 수 없는 불안감이 팽배하여 있다. 땅에서는 폭탄과 총기의 위협이고, 바다 위에서는 해적들이 들끓는다. 해적들은 선박들을 납치하고, 사람도 인질로 삼고 돈을 요구하는 해적의 전성시대가 되었다. 하늘에서는 비행기 납치사건의 공포가 사로잡는다. 검문검색이 때 공항과 항만에서 강화되고 지문을 찍고 전신을 스캔하고 몸수색은 여행의 한 부분이 되었다.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무기들은 날마다 더욱 더 다양화되어진다. 자동소총들을 위시한 총기들은 물

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요인들을 무시할 수 없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극한 가난의 문제가 테러리즘의 온상이 된다고 지적한다. 제이크 해리만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Linking Extreme Poverty and Global Terrorism"에서 "극한 가난이 있는 한 글로벌 테러리즘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라고 했다.

해적의 본거지로 알려진 소말리아는 기근으로 사망의 그림자가 휩쓸고 지난 후에 나라가 흔들리면서 군벌들이 지역을 나누어서 접거했다. 지금은 군벌들의 춘추전국시대가 되었다.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니 총과 무기를 가진 군벌들이 지배한다. 범은 멀고 주먹과 테러는 가깝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 해적에 가담한다"라고 한다.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폭탄테러에 가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흡사하다. 미래가 짝 막힌 문제아들을 선택하고, 가난한 그들의 가정에 보상으로 같은 의미로 도와준다. 문제아의 마지막 효도 비슷한 것이다. 알라의 이름으로 자살폭탄을 안고 사람들을 죽이면 천국에서 알라가 주는 큰 보상이 있다고 설득한다. 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이 글로벌 테러에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지금은 검은

는 것을 선전하는 방법이다. 성경은 결단코 테러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노아의 시대에 대한 말씀은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창6:4)고 했다. 이들은 가인과 라멕과 라멕의 아들로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최초의 무기생산자 두발가인의 뒤를 잇는 폭력과 강도와 테러의 세계이었다. 그 세계는 하나님의 내리시는 홍수의 심판을 받는 시대로 종지부를 찍는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가 끊이지 않는 전쟁과 테러의 시대로 예언한다. 성경은 전 세계적인 전쟁을 예고하였다. 이미 이 땅의 전쟁들은 20세기 전쟁이 되어버렸다. 지난 20여년 사이에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일어난 세계적 전쟁만 해도 2차례나 일어났다. 테러와의 전쟁도 전 세계적인 국경과 지역과, 민족에 국한되지 않는 세계 전쟁이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시대는 전쟁과 폭력과 테러의 시대이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재림의 임박함을 손가락을 가르치고 있다.

테러가 난무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은 평화였고, 사랑의 방법이였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려 온 무리를 향하여 베드로는 검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다. 베드로

글로벌 테러의 시대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김혜천 목사



백만 명의 유대인을 포함하여 12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다. 1949년의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은 공산당을 집권하고 수백만 명을 굶주림으로 죽였다. 그리고 문화혁명이라는 미명으로 지식층들을 추적해서 3천만 명을 죽였다. 1979년의 캄보디아의 폴포트는 게릴라전쟁으로 정권을 잡은 후에 적어도 150만 명을 죽였다. 둘째로, 단체나 개인이 질서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는 하부 테러리즘이 있다. 소수의 무리들이 정부를 뒤엎기 위해서 하는 효과적인 테러공격이다.

이제는 또 다른 구분이 필요할 것 같다. 글로벌 테러리즘은 새로운 양상을 띤다. 대상이 글로벌이다. 글로벌 테러는 테러의 대상이 종교나 나라나 인종이나 지금까지의 한계를 넘는 무차별 테러가 주류를 이룬다. 지역이 글로벌이다. 지구의 6개 대륙의 곳곳에서 테러가 끊이지 않는다. 문제는 테러의 대상이 테러리스트들의 주장과는 전혀 관계없는 무고한 사람들이다. 또한 종교 테러리즘이 테러의 주종을 이룬다.

테러리즘은 소수에 대한 테러를

론이고, 이제는 고성능 사제폭탄을 제조하여 공격한다. 자살폭탄, 자동차폭탄, 구두폭탄, 내복폭탄, 최근에는 브라지어 폭탄까지 나왔다. 911 사건은 테러 규모의 신기록을 갱신했다. 비행기를 이용한 고층 건물 폭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테러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지금까지의 테러의 무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졌다. 화학무기, 생물학적 무기가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

오는 26일부터 한국에서 58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핵안보 문제로 머리를 맞대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핵테러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미션임파서블4 영화처럼 핵을 사용하는 테러는 더 이상 영화의 이야기나 아니라 이제는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제작하는 일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핵폭탄의 소형화 시대에 글로벌 테러의 공포가 세계를 짓누르고 있다.

왜 세계가 날이 갈수록 테러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하는가? 어떻게 우리의 시대가 글로벌 테러의 시대가 되었는가? 글로벌 테러리즘의 문제

의 정당방위였다. 예수님은 그것도 허락치 않으시며 말고의 귀를 고쳐 주셨다. 테러로 다가오는 원수들을 관음으로 보복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테러의 세계에서 구원과 해와 사랑을 이루셨다. 예수님은 테러리스트인 바라바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바라바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시고 바라바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바라바는 살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삼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방법이 옳았다는 사실을 온 세계에 확인시켜 주셨다.

글로벌 테러의 시대에서 믿음으로 산다. 원수를 사랑으로 대한다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테러를 행하는 사람들과 같은 종교, 같은 피부색깔, 같은 언어를 쓴다고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테러의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말할 것이지만 주님의 사랑은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글로벌 테러시대에 평강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앙망하게 된다.

의 정당방위였다. 예수님은 그것도 허락치 않으시며 말고의 귀를 고쳐 주셨다. 테러로 다가오는 원수들을 관음으로 보복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테러의 세계에서 구원과 해와 사랑을 이루셨다. 예수님은 테러리스트인 바라바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바라바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시고 바라바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바라바는 살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삼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방법이 옳았다는 사실을 온 세계에 확인시켜 주셨다.

글로벌 테러의 시대에서 믿음으로 산다. 원수를 사랑으로 대한다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테러를 행하는 사람들과 같은 종교, 같은 피부색깔, 같은 언어를 쓴다고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테러의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말할 것이지만 주님의 사랑은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글로벌 테러시대에 평강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앙망하게 된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나성에는 베리칩에 대해 여러 CD가 나돌고 있는데 베리칩이 666의 표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으면 믿는 사람도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다 하는데 겁이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의 표를 받을 수도 있나요?
-나성에서 이 집사

A: 베리칩이 마귀의 표라고 너무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동심케 하는 아주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반대로 베리칩이 마귀의 표가 아니므로 얼마든지 받아도 무방하다고 말하는 것 역시 무책임한 말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베리칩의 정체에 대해 아직 시대적인 정황으로 볼 때 아직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결론내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순의료용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인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 목회자들도 쉽게 결론짓지 말고 시대적인 상황이 성경 요한계시록의 환난 날의 때와 같은지 좀더 기다리며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직 베리칩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아직 계획만 있지 전 국민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실시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나라인 미국에서 이것이 전 국민적으로 시행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베리칩이 매매나 개인의 의료정보용으로 도움은 될지 모르나 위치추적장치가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짐승을 경배하지 않아

행되지 못하고 시행령이 폐지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베리칩이 제13장의 매매를 위한 수단으로 나온 손과 머리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와 흡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몸에 주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기독교계와 기독교인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리칩이 교인들처럼 그것이 과연 그러한 성경을 참고하며 살펴봐야 합니다(행17:11).

1)제13장의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세상관료인 독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대단한 절대 권력의 힘을 가지고 나타나서 열국을 통치하며 과거 로마황제처럼 자기를 신처럼 숭배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제13:1-4). 2)그 짐승은 그 임으로 하나님을 휘방하며 참람한 말을 할 것이며 권세를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관세로 핍박하고 이긴 자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제13:5-7). 3)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난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 주님의 백성들은 순교를 하든지(제11:7)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4)짐승의 앞잡이인 새기앙인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동원하며 사람들로 선포하여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처럼 경배할 것을 무섭게 강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에게만 그 결과로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표를 받는 것보다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처럼 신앙고백하며 그를 섬기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는 극심한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경배한 후에 소위 거짓선지자에게서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택함받아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며 성령님의 인침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는 마귀가 인을 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혼돈과 공허의 블랙홀 속에 빠져 표류하는 이 시대
여기 영적 전쟁의 근원을 파헤치고
하나님 도성의 거룩한 군사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는
한 편의 스펀터클한 영화와 같은 책이 있다

거룩한 전쟁

I

소강석

인류의 첫 범죄 후 아담에서 기록한 전쟁 통해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과정들을 감회하신 분은
소강석 목사가 처음이라고 본다!
-서명된 권 총신대 신학원장

특별재민 재지의 신학자 못지않은 성의성과
올스런 학문적 위덕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김영환 전 한신대 총장

경고한 신학적 열개를 바탕으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통전적 주해와
고대 근동 문명을 캔버스로 하여 펼쳐지는 입체적 내러티브는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 마다 거룩한 흥분과 감동을 준다.

오늘날의 모든 설교자와 성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
2012년 한 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침서!

1986년경엔 문화사역부 등단하여 한국
영신교회 목회자로 활동 중이며, 새천년교
회 임원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수많은 서
예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고민 중이며, 주
다. 2008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신성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 도서
이도 발행위원이 되어 수차례의 목회자 세미나를 주관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회자 세미나 주관위원을 역임하며, 임원목사의
목회철학과 영성교육에 대한 고민을 담은 책이 되어 한
전한 감동을 전하려고 한다.

연말의 소망지
소강석 목사
1986년경엔 문화사역부 등단하여 한국
영신교회 목회자로 활동 중이며, 새천년교
회 임원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수많은 서
예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고민 중이며, 주
다. 2008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신성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 도서
이도 발행위원이 되어 수차례의 목회자 세미나를 주관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회자 세미나 주관위원을 역임하며, 임원목사의
목회철학과 영성교육에 대한 고민을 담은 책이 되어 한
전한 감동을 전하려고 한다.

영적 전쟁의 소강석목사의 또다른 저서

영적 전쟁 1
302쪽 /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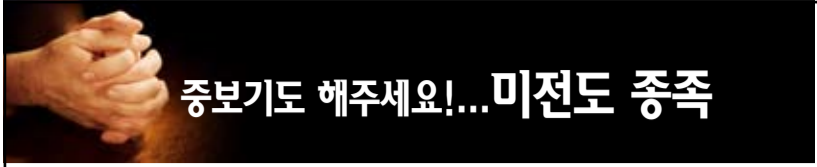
영적 전쟁 2
302쪽 / 2007년

영적 전쟁 3
302쪽 / 2007년

영적 전쟁 4
302쪽 / 2007년

영적 전쟁 1, 2, 3, 4

영적 전쟁 1, 2, 3, 4



부탄의 중부 보티아(CENTRAL BHOTIA)



남쪽으로 인도와 북쪽으로는 중국과 접하고 있는 부탄은 매우 아름다우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주 작은 나라이다. 그곳의 경관은 평원, 사막고원과 가파른 습지, 바위산 히말라야 등 매우 다양하다. 부탄은 또한 천동용의 땅이라는 의미의 "드레이크알(Drukyaal)"이라고 불린다. 부탄의 사회는 세 가지 주요 그룹이 있는데 그것은 티벳의 보티아, 동부 보티아(또는 샤츨-Sharcho) 그리고 네팔인이다. 그밖에 다양한 작은 종족들도 있다. 부탄인을 포함하는 보티아는 부탄의 서방과 중앙부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그들은 가장 큰 종족공동체이며 사회 정치적인 리더들은 대부분이 그룹에서 나온다. 18세기에 티벳에서 부탄으로 이주 해온 다수의 엘리트들과 티벳 망명자들은 몇 번에 걸쳐 이 나라에 들어왔다. 중부 보티아인들은 대부분 키가 크고 건장하다. 공골족을 기원으로 하는 그들은 가는 눈과 날카로운 광대뼈를 가지고 있으며 일

반적으로 독립적이고 쾌활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삶의 모습

중부 보티아인들의 대부분은 농작인이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들이 먹을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작장 밭에서 일해야만 한다. 작물의 일부는 다른 생필품을 사기 위해 시장에 내다 판다. 보티아인들은 쌀과 감자, 야채들을 주요 음식물로 하고 있다. 육류는 소량 섭취할 뿐이며 야크는 가족들에게 우유를 제공한다.

중부 보티아 농작인들은 대부분 작은 부락에서 또는 외딴 집에서 산다. 보다 큰 마을의 집은 밀집되어 지어졌으며 아름답게 디자인되어 가겨져있다. 집을 짓는 데는 두꺼운 목재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추위를 막기 위해 진흙벽으로 울타리를 두른다. 집의 구조는 이층으로 이루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4

층 이상이기도 하다. 가족을 소유한 가정이라면 바닥층에서 기르기도 한다. 지붕은 나무 슬래트로 만들어져 있고 무거운 돌로 덮여 지 지시켜 놓는다.

중부 보티아인들의 결혼은 전통적으로 일부일처를 따르며 여자는 약 16세에 결혼하는 반면 남자는 21세까지 기다렸다 한다. 형식을 갖춘 결혼식은 하지 않으며 신혼부부는 신랑의 가족과 살 수도 있고 신부의 가족과 살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그들 자신의 의지에 따라 농장의 농부로 취직하여 사는 것이다. 대가족제는 보티아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중부 보티아들은 종종 손자들을 돌보기도 한다.

중부 보티아 여성들은 화려하고 엄밀 무늬의 직물로 된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 한 장으로 된 긴 의상은 "키라"(kira)라고 불리며 몸 전체를 둘러 감고 한 쌍의 브로치로 어깨

부분에서 고정시킨다. 그리고 키라 위에 작은 자켓을 입는다. 남자는 긴 격자무늬의 의복을 입거나 "고스"(gos)라고 불리는 옷을 입는다. 낮 시간 동안에는 그 "고"(go)라는 옷을 벨트로 묶어서 무릎까지 닿게 한다. 밤에 잘 때는 그냥 밀고 내려놓는다. 모자는 좀처럼 쓰지 않지만 사원에 들어갈 때에는 남자와 여자 모두 경외의 표시로 어깨에 스카프를 두른다. 스카프의 색상은 개인의 신분에 따라 다르다.

신앙

티벳의 불교주의(라마니즘)인 "붉은 모자"(Red Hat) 종파는 중부 보티아 사이에서 최대의 영향력을 가진 종교이다. 비록 그들은 거의 전적으로 불교주의이지만 전통적인 티벳 사머니즘도 일부 혼합되어 있다. 사머니즘은 보이지 않는 신과 악귀와 조상신의 세계를 믿는다. 대부분의 불교권 가족은 그들의

집 안에 사당을 모신다. 가난한 가정은 작은 붓다 불상이나 그림을 보관하고 있고 부유한 가정은 사당과 같이 정교한 제단, 램프, 향로 등 거의 모든 종교적인 비품들을 빠짐없이 장식한 방을 사용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다른 나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그들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중부 보티아 인들은 이방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매우 보수적이며 조상의 전통적인 가치를 따른다. 그러나 한편 그들은 현대 의학과 문명의 이기들의 필요성에 의해 보다 변화하기 쉽게 되고 있다. 동원 보티아인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곳 사람들은 여전히 격려되어 있고 복음에 저항적이다. 많은 중부와 복음의 노력들이 이러한 분리적인 상황과 전통의 벽을 깨기 위해 요청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이집트 콥트교 수장 세누다 3세 별세

이집트 콥트 기독교의 수장인 교황 세누다 3세가 17일 별세했다고 이집트 국영 나일 뉴스 TV가 보도했다. 향년 88세. 세누다 3세는 지난 1971년 즉위해 30년 넘게 콥트교를 이끌어왔다. 그는 지난 수년 동안 간과 폐질환을 앓아왔으며 지난주 갑자기 주체 강릉을 중단할 정도로 건강이 크게 악화된 상태였다.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세누다 3세가 관공과 종교적 대화의 지지자였다는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이집트 재래의 기독교인 콥트교는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을 신봉하는 기독교의 한 분파며, 이집트를 중심으로 에티오피아, 아르메니아, 시리아 등지에 신자들을 두고 있다. 이집트 8000만 인구 가운데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콥트교 신도들은 지난 수년간 이집트내 이슬람세력으로부터 교회 건물과 개종 강요 등으로 괴롭힘과 조직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지난해 축출된 후 치러진 첫 의회선거에서 강경 보수파 살라피 그룹을 포함한 이슬람 정당들이 약 4분의3 의석을 차지한데 대해 우려를 해왔다.

영국 캔터베리대주교, 동성결혼 논란에 사임



대주교 측은 케임브리지대 교단에 서기 위해 올레를 끝으로 성공회 최고성직자 자리에서 사임키로 했으며 성공회 수장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이 같은 의사를 전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그는 "만약 이 판단이 틀렸다면

영국 성공회를 대표하는 로완 윌리엄스 캔터베리 대주교가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를 둘러싼 논란 끝에 물러난다. 윌리엄스 대주교 측은 케임브리지대 교단에 서기 위해 올레를 끝으로 성공회 최고성직자 자리에서 사임키로 했으며 성공회 수장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이 같은 의사를 전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그는 "만약 이 판단이 틀렸다면

단발로 보도했다.

윌리엄스 대주교는 최근 동성결혼 허용과 동성애자 및 여성 종교 임명 문제를 놓고 진보진영과 갈등을 겪어왔다. 그는 진보적인 성향으로 2002년 진보 진영의 지원을 통해 104대 캔터베리 대주교 자리에 오른 바 있다.

그는 사임 성명에서 "지난 10년간의 대주교 복직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막대한 책무를 감당해야 하는 후임자는 황소의 기질과 코발소의 외피로 무장한 사람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동성결혼 합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최근 종교계와 갈등을 빚은 캐머런 영국총리는 "윌리엄스 대주교는 변화와 도전의 시기에 성공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후임 캔터베리 대주교는 총리가 위임을 지명하는 선정위원회에서 후보를 결정한 뒤 여왕의 최종 재가를 거쳐 임명된다고 뉴스는 밝혔다.

오바마, 할리우드식 영화 공개



오바마 대통령 대선캠프 프가 오바마의 지난 3년간 백악관 생활을 담은 17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를 공개하면서 재선을 향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지난 15일 공개된 이 영화는 오스카상 수상자인 영화감독 데이비스 구겐하임이 제작했고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 톰 헉스카가 내레이션을 맡았다.

영화에서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 등이 등장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이 3년간 이뤄낸 업적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3년전 미국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그는 누구를 탓하거나 헐것 이상만을 쫓지 말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영화에서 바이든 부통령은 임기 중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오사마 빈 라덴의 은신처에 병력 투입을 결정했던 당시를 꼽았다. 그는 "만약 이 판단이 틀렸다면

그의 임기도 끝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작전으로 빈 라덴은 미군에 의해 사살됐다.

영화가 공개되자 공화당은 "할리우드식 허구 영화"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공화당 전략가인 론 본진은 "영화는 3년간 나라 경제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수많은 미국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할리우드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오후 오주에서 열린 첫 공식 선거유세에서 공화당의 미트 롬니, 뉴트 김리치, 릭 샌토럼 후보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누구든지 그들 중 백악관 주인이 나온다면 또다시 중산층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비슷한 시각 오바마 대통령도 매릴랜드 주에서 에너지 정책에 관한 연설 도중 상대 후보자들에게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면서도 "그들은 과거에 머물러있는 비관론자들"이라며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호주 공립학교 종교수업 내용 논란

호주 빅토리아 주 일부 학부모들은 최근 공립 초등학교 내 종교수업 내용이 대부분이 기독교적이라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고 헤럴드선지가 최근 보도했다. 학부모들은 교회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주일학교 수업에 대해, 교내 종교의 공정성을 위해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편견이 없는 내용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의사를 표한 학부모 그룹은 빅토리아 주 시민행정 재판소 소속 유아교육부에 지난 2월 29일부터 7일간의 청문회를 가졌다. 그 중 세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빅토리아 주 공립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종교교육으로 인해 차별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증거를 제시했다. 이번 사례는 호주 교육연합 빅토리아 주 대표 메리 블루엣(Mary Bluett)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블루엣은 학교 내에서 종교 교육에 대한 실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를 줄 것이라며 "우리는 공립학교 교육이 세속적인 목적에 있다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학부모 그룹의 여성 대변인 스캇 헤지스(Scott Hedges)는 "이런 사례는 공립학교들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이다. 그러나 교내 종교 교육이 문화적인 다양성과 편견 없는 내용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했다.

헤지스는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 종교교육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고 있다. 정부는 교회 자원봉사자들이 학교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종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종교는 단지 문화적 학습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한편 빅토리아 주 아동교육부는 이번 사례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대변인은 교사는 학생들이 특정 종교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셸프 스티디, 멘토링 등 독립된 교육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학습을 받을 수 있다.

Holding Redlich Partner 관계자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각자의 종교에 따라 분리되어 교육을 받고, 또 자녀들이 기독교교육으로 인한 지나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심각한 사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호주 크리스천 로비(Australia Christian Lobby) 대변인 라일 헬튼은 "종교교육은 지난 100여년간 학교에서 계속됐으며, 이로 인한 심각한 피해나 오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르다카니 목사 처형이면 코란 또 태우겠다"

이슬람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급기야는 코란소각 파포먼스까지 벌여 온 세계를 시끄럽게 했던 미국의 테리 존스 목사가 이번에는 이란 정부하고 맞짱을 벌이고 있다. 그는 이란 정부가 만일 나르다카니 목사에 대한 내란을 진행한다면 또 다시 코란을 태울 것이며, 무하마드 선지자의 초상도 함께 불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이끄는 단체인 Stand Up America Now는 최근 나르다카니 목사의 처형 임박설이 나오자 이와 같이 밝히고 나선 것이다. 테리 존스는 지난 2011년 3월, 911 테러를 상기한다는 의미로 코란 소각 파포먼스를 벌여 세계를 놀라게 했고, 이슬람교의 거센 반발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의 행위의 결과로 아시아와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대대적인 폭동도 일어났으며, 미국의 정치 및 사회, 종교 지도자들도 그의 행위를 규탄한 바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폭동으로 10명의 UN관리가 사망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에 의해서 저지러진 코란 소각 사건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h3>세계로 떠나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h3>	<h4>감사한인교회</h4> <p>담임목사: 김영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전 7:30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남성순복음교회</h4> <p>담임목사: 권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7:30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남성일민교회</h4> <p>담임목사: 박현성</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7:30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남성서부교회</h4> <p>담임목사: 이경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7:30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나침반교회</h4> <p>담임목사: 민경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7:30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남가주든든교회</h4> <p>담임목사: 김원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7:30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남가주리더교회</h4> <p>담임목사: 김요셉</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7:30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남가주사랑교회</h4> <p>담임목사: 김요셉</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7:30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대흥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권영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7:30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디아스포라교회</h4> <p>Stress Management Center</p> <p>대표: 정영자 목사</p> <p>"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망하며 있는 일교회"</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드림교회</h4> <p>담임목사: 이성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7:30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라이브러 삼성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심현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7:30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미주양곡교회</h4>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7:30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미주평안교회</h4> <p>담임목사: 송경명</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7:30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방주선교회</h4> <p>담임목사: 박용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가정)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가정) 수요예배: 오전 7:30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매달인교회</h4> <p>담임목사: 손연식</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7:30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맨큐버렐라메이교회</h4> <p>담임목사: 임진택</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7:30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복음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7:30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브리지교회</h4> <p>담임목사: 장재성</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7:30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세계비전교회</h4> <p>담임목사: 장재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7:30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세계소망교회</h4>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7:30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새창조교회</h4> <p>담임목사: 정병재</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7:30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안디옥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지용성</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7:30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얼마인침례교회</h4> <p>담임목사: 한종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7:30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오턴지카온티지침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임영민</p> <p>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7:30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요셉선교회</h4> <p>담임목사: 정상오</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7:30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원서크리스천교회</h4> <p>담임목사: 임규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가정) 수요예배: 오전 7:30(가정)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은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기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7:30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인랜드교회</h4> <p>담임목사: 박진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7:30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주님의영광교회</h4>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전 7:30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장대교회</h4> <p>담임목사: 이준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7:30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코너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7:30 새가족: 오전 9:30(월,목)</p> <p>Tel: (714) 951-1111, Fax: (714) 951-1112 1854 Riverside Ave., Santa Ana, CA 92705</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 995-0909 Fax: (323) 995-0910 ■ N.Y.: Tel: (718) 995-4600 Fax: (718) 995-0074</p>



찬양사역자 구현화 사모 'Endless Worship' 발매

두 번째 라이브 워십 음반... 신앙고백 담은 창작 워십곡

찬양사역자 구현화 사모의 새 음반 'Endless Worship'(영원히 드릴 예배)이 최근 발매됐다. 이번 음반은 라이브 워십 앨범으로 찬양사역자 구현화의 고백을 담은 그녀의 창작 워십곡들을 담았으며 기존의 찬양곡과 함께 찬송가를 선보이고 있다.

특별히 함께 앨범에 참여한 뮤지션 가운데는 Faith Hill, Andrea Bocelli, Abraham Laboriel 등과 함께 활동해 온 세계적인 정상 연주자로, 프로듀서로 잘 알려진 Greg Mathieson이 함께 했으며 LA에서 활발한 연주자로 잘 알려진 Randy Kim이 프로듀서와 기타연주 및 여러 악기들로 함께 했다. 드림에는 Open Bible Church의 워십 리더인 기도 한 Scott Pugmire이 함께 했으며 베이스 기타에는 LAMA를 줄



찬양사역자 구현화 사모의 두 번째 음반 표지

연합 1.5세 Key Kim이 함께 했다. 구현화 사모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자가 되는 일입니다. 예배자가 꼭 성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

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배하고 또 주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예배할 사람들입니다. 영원 전부터 시작되어 영원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전부', '삶의 노래', '주를 향한 나의 이 노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유일한 정중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것! 그 외침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구현화 사모는 현재 새생명비전교회의 예배인도자로 찬양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LA에 위치한 미주복음방송에서 매주 낮 시간(12:30-13:20) 음악 프로그램인 '찬양의 꽃다발' 진행자로 방송사역을 활발히 해나가고 있고 베데스다신학교와 월드비전대학교에서 보컬을 지도하는 교수로 활동 중이다.

▲사역문의 및 연락처: (562)310-7307 hyunhwag@gmail.com www.facebook.com/guhyunhwa

특별기고

김기원 목사 (서울 장위제일교회)



문화(Culture)란 마음을 쓰다, 같다, 배양하다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래의 어원은 토지의 경작이라든가 동식물의 배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화를 교양과 동일시하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라고 말할 때 넓은 의미로서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습관 기타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모든 능력과 습성의 복합적 전체인 것입니다. 도덕적 개념에서는 자연이나 야만이라는 개념과 대비해서 문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문화는 인간의 일정한 생활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바지 하는 사회적 활동내지 흐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는 인간을 야만이나 현재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탈피하여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루어

체를 포기하거나 철화하지 아니하고 타락 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후속 심판 후에도 계속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타락 후에도 아무리 하나님이 형상이 손상되었을 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고 있기에(창9:5, 약3:9)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돼 지우리에 거하면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을 지니고 있지만 그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 축복과 명령을 깨뜨린 인간의 형벌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화명령을 온전히 시행하심으로 종군과 영광의 관을 쓰셨습니까.

이 문화화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애를, 인애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노력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 정신의 문화화는 오순절 성령 충만 역사 후 오순절 교회에서 나타났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문화화 되어갔던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바로 하나님의 사상과 공의가 나타나며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에서 시정각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바로 섬김과 희생의 삶이요, 그 삶이 문화화 한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이 문화화 되지 않는

“십자가 정신을 문화화하자”

지고 계승되어가는 개인과 사회적 생활의 모든 분야의 기술로 구현되어 온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문화란 인간이 그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각자의 삶의 모습을 새겨 놓은 것입니다. 동물은 자기의 행동을 재조정하고 수정하면서 유동적 발전을 도모하지 않지만 인간은 세계에 개입하고 그것을 지배하려고 노력하며 신화나 종교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하여 진단과 해석을 하면서 자기를 향하여 엄습해 오는 새로운 세력과 도전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란 행동전력을 늘 새롭게 구성하며 인간과 현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서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 사회의 전신적인 규범과 객관적인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신적인 산물이며 인간의 존재를 지배하는 힘이며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규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1:26-28)고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명령 또는 문화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므로 하나님의 복된 문화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상실되었지만 하나님은 문화명령 자

인류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종교와 문화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기독교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이고(우상) 비판적인 측면이기도 하지만 사머니즘문화와 종교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적 문화와 타율적 문화 그리고 신율적 문화의 개념으로 구분해서 종교와 문화의 관계성을 적용해 볼 때 자율적 문화는 인간정신의 노력이고 타율적 문화는 절대권위를 보존하려는 노력으로서 이상의 합리성과 구조를 억압 하든지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문화인 것입니다. 또 신율적 문화란 문화 창조행위로서 종교가 문화의 실체를 이루는 것이며 문화는 종교의 형식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가치관 정신적이건 물질적이건 간에 결국은 문화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화 없이는 인간은 동물적 인간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혼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다시금 문화세계관을 세우고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진정한 문화에 대한 이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화적 축복의 명령은 결국은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 정신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될 수 없으며 변질된 예루살렘 성전을 답습하는 종교, 영성 상품 판매소로 전락하는 기독교와 장사꾼들이 활개 치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정신이 문화화 되지 않는 크리스천이나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기대할 수는 없으며 기독교 문화가 사회 속에 대중문화화 시킨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기대가 되고 어리석은 망상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보존적 문화와 소모적 문화가 존재하며 또 그 어떤 문화라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속에 진리와 오류, 순기능과 역기능이 혼합되어 있기에 이 커다란 유기체 속에 날마다 진리문화로 새로운 세포로 생성되어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입니다. 사머니즘이나 전통적 토속 종교의 문화의 그릇에 담겨진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영원히 불변하며 사라지지 않고 약하여 지지 않는 십자가의 정신의 그릇에 담겨진 십자가의 피를 담아 가정의 문실주와 문인방에 뿌림으로 멸망문화 사단문화가 침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문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와 법계를 앞세우고 따라가는 신부주의 문화의 르네상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새 책 소개

“영혼의 소통”

저자 장혜순 사모

삶에 대한 도전과 믿음의 증진



‘하나님을 향한 단단하고 깊이 있는 발걸음’이라는 부제를 달고 최근 출간된 “영혼의 소통”은 장혜순 사모(뉴욕영락교회 원로 한세원 목사 부인)의 세 번째 저서이다.

‘마음으로 쓴 글’이라는 서술어 대(장혜순 사모의 모교) 이광자 총장의 평처럼 지난 2권의 책(“심플라이프”, “마음의 습관”)과 아울러 그 말을 충분히 동감할 수 있다. 앞서 출간된 2권의 책을 보면 ‘맞아, 맞아!’를 되뇌이며 ‘이런 공감대...’ 하던 생각이 불현듯 다시 일어난다.

첫 제목 “집으로”를 읽으며 한층 더 세련되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장 사모의 필체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두 번째 책 출간 후 필자가 지내온 4년간의 삶은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설명한 것처럼 남편 한세원 목사(뉴욕영락교회 원로)의 은퇴 후 아내들이 사는 매릴랜드로의 이사, 선교사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사역, 시어머님의 소천 등 많은 일들을 담아낸

이 책은 3부 시아버지 한승직 목사와 시외숙 박영주 목사의 간증점을 곁들여 독자들에게 신앙의 유산들을 보여주고 있다.

‘때로 마음을 담아 써놓은 글들에게 세상구경을 시켜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이유는 자칫하면 시대 감각에 뒤지는 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였다고 밝힌 필자는 두 번째 책이 니카라과 선교에 유용하게 쓰임을 받은 것처럼 이번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한다고 고백했다.

아울러 이 책이 “자칫 덩그러니 쉬운 노년의 일상에서 동행해야 할 가까운 이웃들에게 자신만 쓸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책은 덩그러니 노년 뿐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곳곳에서 불쑥불쑥 드러나는 삶에 대한 도전과 믿음의 증진을 위한 모습들로 인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할 것이다.

1부 집으로: 집으로, 대지진, 노년을 단정하게, 뉴욕-떠나온 뉴욕, 영혼의 소통(모스카-니카라과-중국-멕시코), 추억여행, 심겨진 한 그루 나무되어, 모노드라마, 영혼의 목걸이 등의 소재의 글과 2부 아바야 사모: 아바야 사모, 사막의 아침 메일, 3부 간증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제목마다 신실하면서도 진솔 담백한 글들이 담겨져 있다.

에필로그까지 총 277페이지, 쿠팰출판사 발행. 일만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메일: hsc101246@gmail.com (유원정 기자)

“선교지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 원하는 선교사님을 지정하거나 후원 선교지역을 명시해주시면 본지가 선교사님과 연결해드립니다.

후원희망 지역(나라):	
후원자	한글
	영문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
기타	1년 후원 / 2년 후원 / 3년 후원 ※ 약정 후원 년수에 O동그라미 해주세요.

후원방법: 1년 구독비 190달러를 본지로 우송해주시면 됩니다(미국내는 100달러).

Pay to Order: The Korean Christian Press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 E-mail: NY@chpress.net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 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낼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써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 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80. 성경의 궁금증들(3) - 하나님은 누구신가?

지난 칼럼에서는 디자인은 지적 존재에게서만 나올 수 있으므로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하였다. 생명체 속에 들어 있는 정보 자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좋은 증거다. 정보과학자인 워너 기트(Werner Gitt)는 무질서에서는 어떤 정보도 생겨나지 않으며, 물질에서 스스로 정보를 만든다는 순서나 과정이나 법칙이 알려진 것이 없다고 단언한다. 또 그는 정보는 항상 (더 큰) 정보에서 나오므로 엄청난 생명체의 정보는 이보다 더 엄청난, 거의 무한히 지적 존재만이 그 생명체 정보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 지적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

이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생명체를 만든 그 정보 혹은 지적 존재는 그보다 더 큰 정보/존재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렇게 계속 더 큰 지적 존재를 생각하다보면 우리의 유한한 이해력을 완전히 넘어선 무한한 지적 존재가 있어야 된다. 바로 이런 무한한 존재가 성경의 하나님 아닐까? "태초에 성경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하나님은 시간에도 제한 받지 않으시고, 공간에도 그리고 물질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제한 받지 않으시는 무한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계셨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

물질이 처음부터 아무 이유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가 스스로 배열되어 DNA 정보를 만들었고 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품들이 단백질들도 스스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무질서의 법칙적인 열역학 제 2법칙을 위반하는 설명이므로 반 과학적이다. 더구나 그 단백질들은 100% 모두 다 DNA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므로 DNA 정보 없이 단백질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생각은 기적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

리므로 무한한 지식의 근원인 성경의 하나님이 생명체의 정보 자체와 이 정보를 이해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주장은 현재의 과학과 잘 어울리는 주장이다.

진짜 과학이 영원한 창조자 하나님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지적

경 말씀과 서로 통하는 말과 같이 들린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다. 만약 성경의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자로 인정하면 나는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그 분께서 내 삶의 법칙을 정하실 수 있다. 성경은 우리가 창조자이신 그 분을 반역(죄)했다고 말한다. 그 반역 때문에 우리 몸은 사망선고를 받았고 심판 상태에서 그 분 없이 영원히 살아야 한다. 복음은 우리의 창조자께서 우리를 그 반역의 죄에서 구원할 수단을 제공하셨다는 사실이다. 믿음으로 그 분께 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창조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

그러나 과학과 이성의 근거가 된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무엇인가를 증명하려면 확실한 권위에 근거를 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논리적 사유와 과학적 탐구에 기초다.

예를 들어 보자. 내가 A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A를 안 가질 수 없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에 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무신론자들도 과학을 할 때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빌려다가 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는가? 영원한 존재는 언제나 존재하므로 하나님은 창조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I Am"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로 시간 밖에서도 존재하셨으므로 존재 원인이 필요 없다. 성경은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11:6).

그러나 크리스트교의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질서에서 질서와 정보가 생겨났다는 진화의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다. 크리스트교의 믿음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핑계(excuse, 용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건강/칼럼



이수일 전도사
(레크레이션 치료/ 정신건강 상담가)

베푸는 자의 독선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미덕으로 교회생활에서 가장 격려되는 행동 중의 하나이다. 베푸고 나눔의 미덕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애를 자아내게 한다. 베푸고 나눔은 희생정신과 더불어 인간의 정신기치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것들로 간주된다. 그런데, 베푸고 나눔에 좋은 열매 맺기가 중단되며 감정적인 양극의 관계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주변에 많아 참 안타깝다. 이는 베푸는 자의 독선적인 자세로 인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베푸는 자의 독선으로 인한 관계악화의 양태는 국가관계에서부터 일상적 인간관계에서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듯하다.

강대국 미국이 선교와 경제 지원 등으로 많은 나라들을 도와주었는데, 안타깝게도 도움을 받은 여러 나라들이 오히려 미국을 적대시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 지각과 통찰력이 있는 미국 기독교지도자들은 동맹 우호관계가 깨진 것이 도움을 받는 나라 민족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언급한다. '감사하는 하나, 골육하기는 십다'는 민족주의를 자극했다는 말이다. 여러 해 전 '미군에 의한 두 여중생의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을 자극한 사례를 연상하며, 필자는 그들의 통찰력에 감사했다. 그 당시 국민의 규탄하는 대상은 바로 '오만한 자들의 자세'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혐의 논리에 의한 불공평(Unfairness)과 부정의(unjustice)에 대한 폭발이었던 것이었다.

우리 주변에도 베푸고도 지속적 감사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서로를 회피해야 할 정도로 감정이 악화된 관계도 많다. 쉽게 말해 베푸고 비난 받는(욕먹는) 경우들이다. 베푸는 자의 태도의 변화과정을 보면 처음에 호기심으로 다양하게 베푸고 환심을 사며 관계적 관망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강한 주장을 하게 되고, 나중에 자기의 말을 듣지 않거나 하며 격정을 낸다고 한다. 베푸고 감사해 하던 자는 베푸는 사람이 자기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훈시하며 자기에 대해 고자세를 유지하는 인상을 받게 되면서 마음의 거리가 생겨 결국은 경계와 불신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위의 두 사례에서 베푸는 자의 거칠고 무례한 독선적 태도가 상호존중 관계를 깨뜨리는데 기인함을 주목할 만하다. 베푸는 자의 고정된 피해의식과 주변의 함담이나 시기 및 질투등의 비방도 베푸고 나눔의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베푸는 자의 독선과 아집, 혹은 나아가 횡포 등의 고자세적 태도가 베푸는 수혜자로 하여금 자신들을 멀리하게 한다는 점이다. 물론 듣는 자가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인내하면 되지만 무안을 당하고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되면 관계회복불가능까지도 초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독선이나 아집은 상대적 우월감을 소유하거나 상대방을 통제(Control) 혹은 조작(Manipulation)하려는 태도와 연관이 있다고 한다. 물론, 사랑하고 돌보려는 미덕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많지만 말이다. 이러한 독선적 행동과 태도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처를 주고받게 하여 소원한 인간관계를 만든다. 사랑을 베푸고 원망을 들으니 배신감으로 상처가 되고, 나아가서는 헤어날 수 없는 정도의 관계악화로 치닫게 되는 경우도 많다.

베푸는 자에게서 오는 유익한 마음과 철저한 겸손의 자세의 형성과 발달은 이 베푸는 자로서의 위험스러운 독선과 아집, 그리고 횡포 등의 고자세를 예방하여 성경의 열매를 맺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어떤 갈등상황에서 이견이 생기더라도 진정 자세를 낮추며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지혜도 필요하다. 직선적인 격정의 발언을 통제하고 조절하며 상냥하고 친절할 태도로 따뜻하며 부드러운 대화의 기술이 신뢰관계를 유지하게 하며 베푸는 은혜를 소중하게 할 것 같다. 추가로, 자기 생각을 나눌 때 자기의 견해가 듣는 이로 하여금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지혜 중의 하나로 생각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강요함이 없이 말이다.

'우연' 주장 진화론, 진리 여부 확인 근거 없어 무신론자도 과학 할 때에는 성경적 세계관 사용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

과학과 논리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은 무한한 정보와 지적 능력의 소유자이시다

설계론자인 마이클 베히(Michael Behe)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Darwin's Black Box).

"과학이 지적설계를 용납하려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철학적인 이유 때문이다. 유능하고 존경 받고 있는 과학자들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넘어서는 어떤 것도 과학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는다. 아주 건설적이고 간단한 설명이 있어야도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과학을 할 때 어떤 한 종류의 설명만 용납하게 하는 과학철학에 헌신되어 있다." 이 말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성

두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고 왜 그 문장이 진리라고 확인할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논리적이고 우리는 그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아는 것이다. 만약에 모든 것이 우연히 되었다면 그 말이 진리인지 확인할 근거가 전혀 없다. 물질의 성질들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물질의 법칙을 발견하려는 과학적 시도도 근거가 없게 되고 어떤 발견도 확실하지 않으므로 의미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므로 그 분은 우주를 변하지 않는 법으로 유지하고 계신다. 따라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질 때만 참된 과학을 할 수 있고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롬1:20).

성경의 3위일체 하나님은 시간-공간-물질의 연속체로 이루어진 우주의 창조자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거가 되시며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제한 받지 않으신다. 또, 생명체 속에 들어 있는 모든 정보의 주인이시므로 무한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알고 세고 계신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므로 우리 모든 사람과 동물과 무생물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특별한 피조물 즉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특권을 허락하셨다. 이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과학을 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능력도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조물들을 볼 때 창조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깨달아 그분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도 해주셨다. 더욱이 이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되어 영원히 창조자와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영원한 사랑의 "I Am"이 시기도 하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갑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7:0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30 (월-토) Tel: (702) 379-7979, Fax: (702) 379-8191 6534 N.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8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일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주일 8: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Tel: (704) 841-6291, Fax: (704) 841-1698 28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7:00 금요일 기도회: 오후 7:00 Tel: (303) 431-8800, Fax: (303) 431-8843 7795 Ripley St., Arvada, CO 80009	풍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Tel: (910) 222-8291, Fax: (910) 222-8292 3290 Morris Rd., Levittown, PA 19048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동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한국)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한국) 수요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Tel: (410) 445-4919, Fax: (410) 445-4918 1600 Rockrose Rd., Levittown, PA 19047	맨얼교회 담임목사: 김용태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한국)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한국) 수요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Tel: (410) 447-9794, Fax: (410) 447-9793 3706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권병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Tel: (617) 552-4450, Fax: (617) 552-4457 750 Main St., Hingham, MA 01948	
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Tel: (410) 327-8444, Fax: (410) 327-8445 1005 Reservoir, Baltimore, MD 21202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한국)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Tel: (204) 455-0191 5007 Pacific Ave., Fargo, ND 58103	시애틀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15 수요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한국) 목요일: 오전 8:30 Tel: (206) 527-0381, Fax: (206) 524-1749 4640 N.E. 109th St., Seattle, WA 98125 www.kyponline.org	입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권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예배: 오전 4: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월-토) Tel: (301) 870-8949 / 사택: (301) 870-8179 850 Roney Rd., Gaithersburg, MD 20878 www.kjms.com	앵커리지델리문교회 담임목사: 유계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수요 기도회: 오후 7:00 Tel: (202) 344-6446, Fax: (202) 344-3132 2320 Woodrow Rd., Anch., AK 99518	엘파스델리문교회 담임목사: 하재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한국)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Tel: (214) 257-7959-1496, 사택: (214) 257-4343 3416 Wilbur St., Plano, TX 7507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윤권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00 Tel: (714) 543-0296, Fax: (714) 543-0337 750 Wilbur St., Houston, TX 77048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경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7:00 금요일 예배: 오후 8:00 Tel: (214) 434-6766, (214) 434-6837 458 E. 7th St., Dallas, TX 7520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재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월-토) Tel: (703) 341-4427, Fax: (703) 341-4448 4213 Metcalf St., Alexandria, VA 22307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창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목요일 예배: 오후 8:00 www.jpc.org Tel: (800) 200-7900, Fax: (800) 200-7914 10201 Robbins Rd., Richmond, VA 23224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봉삼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Tel: (410) 203-0318, Fax: (410) 203-0318 329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재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Tel: (253) 385-1949 7481 S. Verb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Tel: (253) 385-2807, Fax: (253) 385-4824 www.kyongchun.org 8702 E. 8th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영 1부 예배: 오전 9:3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Tel: (253) 259-9775, Fax: (253) 259-4619 8424 E. Yukone Ave., Tacoma, WA 98444	
템파장로교회 담임목사: 윤경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한국) 수요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Tel: (480) 725-0191, Fax: (480) 567-3997 1150 S. Debon Rd., Chandler, AZ 85286	아트포드재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현만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Tel: (603) 842-4738, Fax: (603) 842-6696 306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하와이지역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Tel: (808) 726-9011 1835-A Pepee Ave., Honolulu, HI 96816	아가페신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Tel: (808) 726-9011 1835-A Pepee Ave., Honolulu, HI 96816	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정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Tel: (808) 739-7004, Cell: (808) 219-4982 3022 8th Ave., Honolulu, HI 96816	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관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Tel: (808) 277-2386/967-1778/642-2522 1367 E. Sanderson St., Honolulu, HI 96814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원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Tel: (808) 847-4252, Fax: (808) 847-4167 www.kyongchun.org 2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새 노회장에 정종윤 목사.이춘준 목사 KAPC, 서가주노회 로스앤젤레스노회 정기노회

서가주노회

60교회 16명 목회자 전입

서가주노회(노회장 이창우 목사)는 제37회 정기노회를 13일 오전 10시에 나성열린문교회(담임 박현성 목사)에서 열고 노회장에 정종윤 목사, 부노회장에 오요하 목사를 선출했다.

이날 정종윤 노회장은 "땅끝까지 복음 전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노회, 이웃교회와 노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노회와 목회자가 되도록 힘쓰겠다. 그래서 서가주노회가 좋은 노회로 소문이 나는 노회,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노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노회는 김철수 목사(은혜성교회 담임)를 비롯하여 60개 교회와 16명의 목회자들이 전입 및 가입해 서가주노회 규모가 증가했다.

다음은 37회 KAPC 서가주노회 새 임원명단이다.

△노회장: 정종윤 목사(임마누엘교회) △부노회장: 오요하 목사(생명이품성교회) △서기: 선준 목사(소망장로교회) △부서기: 정우성 목사(남가주광영교회) △회록서기: 박근덕 목사(바울선교회) △부회록서기: 권희창 목사(필그림선교회) △회계: 노승호 장로(나성열린문교회) △부회계: 임성렬 장로(미주성산교회).

(박준호 기자)



제37회 KAPC 서가주노회에서 정종윤 목사가 축도하고 있다.



노회장선출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는 노회원들.

로스앤젤레스노회

5인 진상조사위 구성

로스앤젤레스노회(노회장 이동현 목사)는 지난 6일 세계소망교회(담임 오세훈 목사)에서 정기노회를 갖고 새 노회장에 이춘준 목사(창대교회 담임), 부노회장에 조정기 목사(갈보리섬기독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회의에 앞서 이동현 목사 사회로 드려진 개회예배는 전태준 목사 기도, 성기선 목사 성경봉독, 설교 오세훈 목사, 성찬집례 이운영 목사, 축도 이정현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서기가 회원을 점명한 후 이동현 목사가 개회를 선언하자 각 부서 보고와 임원선거에 들어갔다.

이날 노회에 앞서 이동현 목사는 회중에게 발언의 기회를 수락 받은 후 "노회원들에게 블랙메일이 돌고 있다. 이 내용은 사실과 무관하다. 이러한 메일이 돌고 있는 것은 가슴



나성서부교회 창립 40주년 춘계말씀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장영춘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부흥은 성령충만 할 때 나타나는 것” 나성서부교회 춘계말씀집회, 강사 장영춘 목사

나성서부교회(담임 이정현 목사)는 교회설립 40주년을 맞아 춘계말씀집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15일부터 18일 까지 분지 발행인 장영춘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이정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둘째 날 저녁집회는 안병권 목사(가나교회)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에 이어 장영춘 목사가 '데오빌로여 오순절을 통과하라'(행1:1-14)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장 목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령충만을 받지 않으면 힘과 피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으며 모든 일에 부정적이 돼버린다"고 말하며 "하나님 먼저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신앙생활 할 때 말씀충만, 기도충만,

아픈 일"이라며 "로스앤젤레스 노회가 주님보시기에 아름다운 노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원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신임노회장 이춘준 목사(창대교회) △부노회장 조정기 목사(갈보리섬기독교회) △서기 김성일 목사(빅토빌예수마음교회) △부서기 김만수 목사(새생명선교회)가 선출됐다.

이날 본 노회에서는 전 임원들이 사임을 함으로 이번 18회기에만 회록서기, 회부서기는 신규임원으로 임명하기로 하고 △회계 박세훈 장로(한미장로교회) △부회계 박영수 장로(동문교회)를 유임케 했다.

한편 전임 노회장이 노회에 앞서 발언한 블랙메일에 관해서는 차후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대책을 세우도록 허락하고 이춘준 목사, 이정현 목사, 김성일 목사, 전태준 목사, 표세훈 목사를 진상조사위원으로 선출했다. 또한 앞으로 노회임원선거 시 부노회장만 직접 선출하여 현의부가 심사해 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노회장이 되도록 노회규칙을 수정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이날 노회 진행 중 몇 가지 이슈로 이견을 가진 회원들이 있어 노회 분리가 예상되고 있다.

(이성자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교회갈등 극복을 위한 '갈등전환 세미나'

LA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메노나이트교단 서남부지역 컨퍼런스, 풀러신학교 한인학생회 공동주최로 열리는 '갈등전환 세미나'가 4월 2일(월) 오후 4시부터 9시30분까지 풀러신학교내 Payton101 홀에서 열린다. 세미나의 강사는 갈등중재 전문가로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데이비드 옥스버거 교수(풀러신학교 목회상담학부)와 갈등전환 전문 강사인 오상열 목사(기독교평화센터 소장)이다. 참가자들은 이 세미나를 통해 갈등의 원인과 유형, 갈등전환의 정의와 방법, 성경에서 배우는 갈등해결 등을 배우게 된다.

▲문의: LA기윤실 (213)387-1207, 풀러신학교 한인학생회 (626)600-1814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 집중 훈련

남가주빛내리교회(담임 박용덕 목사)는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 집중 훈련을 4월 4일(수)과 5일(목)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최한다. 이번 집중훈련의 강사는 김기남 목사(예심전도훈련원장)이며 참가 대상은 담임목사, 전도사, 사모, 사역자 및 전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이다. 참가비는 20달러(점심식비)

▲문의: (714)401-9874

갯스비전교회 부활절 특별새벽기도회

갯스비전교회(담임 임금빈 목사) 부활절 특별새벽기도회가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4월 2일(월)부터 7일(금)까지 열린다.

▲문의: (714)331-8919

가정사역자 훈련코스

미주두란노서원에서는 '금병달 목사, 김정진 사모' 부부를 초청 가정사역자 훈련코스를 26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한다. 훈련 또는 부부 상담, 부부성장모임, 대화학교, 가족치유, 이혼 및 사별가정회복모임 등이 진행된다.

▲문의: (213)235-1068

라온 축복(렘1:3-12), 둘째 날 새벽 '예수를 바라보자'(히12:1-8), 셋째 날 새벽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벧전5:7-11), 넷째 날 저녁 '참지기 인생의 사명'(벧전 4:5-11) 등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본 교회 제3수련회로 열린 넷째 날 오후 집회는 '현신의 원리'(롬12:1-21/고전4: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창대교회에서 월드비전 호프콘서트

월드비전이 주최하는 '한 생명 살리기 Hope concert'가 지난 11일 창대교회(담임 이춘준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콘서트는 '나는 내 아이들'의 이은수 목사서와 이해영 사모, 이기현 형제 등 스태프가 출연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전 세계에 굶주린 한 아이와 결연을 맺는 시간을 가졌다.

(정리: 박준호 기자)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오렌지카운티지역 교회연합 부활절새벽예배

▶ 일시: 2012년 4월 8일(주일) 새벽5시
▶ 장소: 베델한인교회 본당(담임 손인식 목사)
Bethel Korean Church
연락처: TEL, 949-854-401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사회: 엄영민 목사 (OC교협회장)
- 기도: 한기홍 목사 (OC교협증경회장)
- 설교: 한중수 목사 (얼마인침례교회 담임)
- 헌금기도: 손찬우 집사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회장)
- 축도: 신중은 목사 (OC목사회회장)



한기홍 목사



엄영민 목사



신중은 목사



손인식 목사



한중수 목사

기도콘서트

담복자 안전과 복원의 복음화 (손인식 목사)
미국과 한국의 영적회복 (고석찬 목사)
미국과 한국의 선거와 정치안정 (민경영 목사)
미국과 한국의 경제회복 (고건주 목사)
다음 세대의 교회정착과 부흥 (윤덕곤 목사)

찬양

베델한인교회 연합성가대
오렌지카운티제인장로교회 성가대
얼마인침례교회 성가대
베델한인교회 경배찬양팀
할렐루야 연합찬양 (지휘 송규식 목사)

이슬람 뉴스

반대 불구 미국 내 모스크 숫자 증가 - 미국

[더 이코노미스트] 이슬람은 2001년 9월, 미국에서의 테러 공격 이래로 계속 번성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Multi-Faith Coalition'의 새로운 보고에 따르면 2000년 1,209개였던 모스크의 숫자는 2011년 2,106개로 증가, 지난 10년간 거의 두 배가 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Ihsan Bagby는 성장 요인을 건축 붐으로 설명한다. 종교 성장 다양성의 한 반영으로 미국 내 무슬림 인구가 증가했고, 이것이 더 많은 사원들을 만들어내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무슬림들은 대부분의 모스크가 있는 도시 뿐 아니라 교외로도 더 많은 수가 이동하고 있다. 2000년도 교외에 있는 사원의 비율은 전체 사원 중 16%였는데 2011년엔 28%로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미국 사람들에게 급진적인 이슬람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를 일으키기도 모른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그것이 그야말로 염려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모

스크 지도자의 90% 이상이 젊은 무슬림들 중 급진적인 무슬림의 증가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결과는 무슬림들이 미국 각 기관과 정치에 참여해야만 한다는 점에 거의 모든 모스크의 지도자들이 동의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사회에서 이슬람이 적대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단 25%에 불과한데 2000년 54%에 비하면 그 수치가 많이 감소했다. 현재 이슬람은 미국 안에 있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급진주의 대신 세속주의를 직면한 주요 도전으로 보고 있다.

Ihsan Bagby씨는 미국 내 무슬림 인구를 약 7백만 정도로 보고 있다.

"emo" 패션의 심대들 돌에 맞아 처형 - 이라크

[UCA뉴스] 이라크에서 100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서양의 의복과 헤어스타일을 한 죄 값을 치르고 있다. 보고서는 소위 "emo" 청소년들이 바그다드의 종교적인 급진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됐다고 밝히고 있다. 알 아크바르에 따르면 활동가들은 최소 90명의 "emo" 청소년들이 지난 달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이라크 내무부는 그들이 악마를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단어 'emotional'의 축약형인 "emo"는 펑크 록 음악의 스타일로 미국에서 유행했고 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특정 의류

스타일과 행동을 포함한 대안적인 문화로 발전했다. "emo"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독특한 헤어컷, 피어싱 등의 액세서리를 한다. 또한 알 아크바르는 "emo" 현상 또는 악마 숭배가 사회에 악영향과 위협을 끼치기 때문에 가능한 이러한 현상의 확산을 조기에 막도록 정부는 도덕 경찰에게 권한을 승인했고 이들이 해당 청소년을 미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이라크의 'emo'와 심대들이 밧박하고 있다.



총선,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측 대패 - 이란

[미국의 소리] 이란 총선거에서 마흐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보수주의 비판론자들이 대거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 관영 텔레비전은 지난 2일 치러진 총선의 개표 결과 290개의 석 가운데 200석 이상을 야당에게 내주고 말았다고 보도했다. 또 200석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지지하는 보수층과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반대파들이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선거에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측근들은 의회에 대거 진출하는 대신,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측근들은 잇달아 고배를 마셨다.

(이슬람 네트워크)



선교사 편

필리핀

안녕하세요.

갑수록 더워지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의 기온은 사람을 쉽게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3월 말부터 시작되는 여름 방학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12년 한 해도 멀리 선교지에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선교사역이 잘 진행됨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3월에 봄나물을 쉽게 맛볼 수 있어 그 맛이 그리워집니다. 여기는 요즘 물과 전기가 많이 부족하다보니 하루에 3시간씩 정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내에 나가면 여기저기에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귀가 따가울 정도입니다.

지금은 정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더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건기가 시작되어 비가 내리지 않아 물이 부족합니다. 곧 있으면 동네마다 제한 급수를 할 것입니다. 제한 급수를 하게 되면 여러모로 불편함이 많습니다. 2012년 한 해도 이곳 필리핀의 남부 잠보앙가 지역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시는 동역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교 증축 공사 시작

작년 12월 중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5, 6학년이 공부할 교실 3칸이 필요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공사 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기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이 확보될 때마다 작업을 해왔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제까지 잘 진행되어왔습니다. 남은 공사의 절반도 필요한 재정이 계속해서 채워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려 하였던 때가 엇그제 같고, 그때는 학교 주변이 정글처럼 어수선하였고, 정리되지 않은 땅이었는데 지금은 첫 번째 건물과 기숙사가 이미 완공되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축 건물은 지난 첫 번째 건물의 맞은편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외지고 거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마음을 계속해서



예전 학교 건물

부어주시고 일하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요즘은 건물 위에 지붕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들이 완성되면 지붕 철관을 떼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전기와 시멘트 작업을 건물 벽과 바닥에 작업을 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온 공사도 쉽지 않았지만 잘 진행되어 온 것처럼 앞으로 남은 공사도 잘 마무리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여름방학 기간입니다. 소망하는 바로는 여름 방학기간 안에 건물을 완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6월 초에 여름방학이 끝나면 바로 유치원 학생들과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공부할 교실이 필요합니다. 평일에는 수업을 하고 토요일에는 찬양 연습,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고등부, 대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학교와 교회로서 건물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정이 좀 부족하지만 끝까지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축 건물

비자 연장의 어려움

저희 가족이 선교사 비자 연장을 작년 12월에 신청하였는데 마감일이 3월 말까지입니다. 요즘 필리핀 안에서 10년 이상된 선교사들의 비자가 거의 대부분 거절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리핀 정부의 돈이 부족하다보니 비자를 쉽게 주지 않게 만들어 외국인인 저희는 다시 해외에 나갔다 들어

오게 한 다음에 다시 비자를 처음으로 만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돈이 많이 들어오기에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증축 공사 하느라 재정이 거의 바닥이 난 상태인데 해외에 안 나가고 비자가 나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에도 저희 가족의 비자가 나오지 않아 한국에 갔다 온 일이 있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할 일, 여름 성경학교 준비, 새학기 준비 등 할 일이 많은데 비자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저



증축 중인 건물

희는 2년짜리 선교사 비자를 받아 잘 거주하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비자가 거절될 경우 이번엔 들어간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다시 해외에 온 가족이 한번 나갔다와야 하고, 다시 비자 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다음에 다시 비용을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기도제목

① 뉴홈(새 희망)학교 안에 교실 3칸이 더 필요합니다. 유치원교실, 5학년 교실, 6학년 교실입니다. 공사를 끝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② 비자가 잘 해결되어 해외에 나가지 않도록

③ 림빠 마을에서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파우슈 무슬림 출신 학생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④ 선교지에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부분이 메마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정윤, 공윤자 선교사 드림
▲이메일: ohgongtak@hanmail.net



선교사 편지

에티오피아

이번 주 토요일 강남 도서관에서 두 분의 이야기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 환영합니다.

느가투 할아버지가 말년에 복이 많으시다. 젊은 시절 참전했던 한국도 방문하시고, 대통령도 만나시고, 이제 본인이 전투를 치렀던 춘천에도 가시고, 그 지리지도 못살던 한국의 변화도 눈으로 직접 보시고, 자신이 드린 젊음의 희생에 대한 열매를 보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생을 평안한 마음으로 정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참 크다. 내가 에티오피아에서 드린 젊음의 열매가 에티오피아 땅에도 볼 수 있기를 기도한다.

44회 국가조찬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설교자 오정현 목사님을 만나 인사, "잘 오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라고 참전용사에게 인사를 해주어 감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입장하시며 참전용사 느가투에게 오셔서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국회조찬기도회 초청으로 특별 순서로 한국전 참전에 대해 말씀 하셨습니다. "20대 초반에 한국전에서 싸웠지만 또 다시 한국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또다시 친구들과 와서 한국을 위해 싸우겠습니다"라고 많은 국회의원과 관계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박수와 사인... 사진 함께 찍자는 요청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의 20대 중에 아프리카에서 생명을 내어줄 형제들이 있는지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와 그의 아들 19살 고등학교 1학년. 오늘 오전 11시 극동방송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 방송됩니다. 60년 만에 한국전쟁 후 방문한 두 사람이 나누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제 안과에 시력회복을 위해 방문했으나 아버지는 시력을 잃고 더 이상 한국을 보지 못하고 소리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있는데 어제 방송 녹음에서 한국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했다고 합니다. 60년 전과 아주 다른, 천국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한 것 같다고 합니다.

(14면으로 계속)

www.sbm.or.kr

크리스천이 이대로 살아서는 안됩니다. SBM이 처방을 제시합니다.

SBM총재 왕의 영 목사

SBM의 3대 목표

1. 말씀의 신앙화 From Scripture to Faith
2. 신앙의 생활화 From Faith to Innovated Life
3. 생활의 문화화 From Innovated Life to Cultural Impact

기독교생활개혁운동본부 THE HEADQUARTERS OF SON BAL MOVEMENT

서울(02)564-3191, Fax. (02)564-6933 E-mail: sbm01@hot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성물 바른성교를 지향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전채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 수 있으며 미주내 동역원 교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신문보내기 후원을 통해 귀한 선교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 전체뉴스
- 칼럼
-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치를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24시간 오픈

교포사외의 등대 주일은 쉽다

New York Kom Tang

24시간 오픈

맨허튼: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947-8482
뉴저지: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348-0201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 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Yoo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 · 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9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NY Christian Guest House

뉴욕선교사의집

www.nycgh.org

5대양 6대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편안한 입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sunnyusany@yahoo.com

35-74 162 St, Flushing NY 11358

347.732.9459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발행인 장영준 목사

주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Take His Word, Return to The Lord!

주최: 미주크리스천 신문

강사



김용도 목사
• 금란교회
• 주강사



소강석 목사
• 새에덴교회
• 주강사



권태진 목사
• 군포제일교회
• 주강사



황의영 목사
• SBM 대표



현상덕 목사
• 캐나다 대표회장



김기원 목사
• 장위제일교회



조일래 목사
• 수정교회



송용결 목사
• 신천교회
• 현지대회장



이영섭 목사
• 불티모어교회



이명연 목사
• 나성서부교회



김송목 목사
• 할렐루야교회



홍민기 목사
• 호산나교회



조일구 목사
•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김규동 목사
• 요한동경교회



송규식 목사
• 차세대 연구소 소장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등록 신청서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교회 이름	한글			
교회 이름	영어			
교회 주소				
전화	Fax.		E-mail.	
사택 주소				
전화	Fax.		E-mail.	

()와 같은 방을 쓰기원함

관광에 참여하기 원함

등록금	목회자	
X명	평신도	
소계		
선금	CK#	
잔금	CK#	

본인은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주후 20 년 월 일

서명: _____

* 위의 영어 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써 주십시오
* Pay to the order 는 The Christian Press 로 써 주시면 됩니다.
* 등록 (100불 이상 등록금을 보내신 분) 즉시 등록 접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잔금을 등록일 이전까지 완납하여야 합니다.
* 등록 취소 시에는 50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일 시 2012년 4월 17일(화) ~ 4월 20일(금)

▶ 세미나장소: 한국 금란교회 ▶ 숙소: 워커힐 호텔

- **참석대상** 1) 현재 시무중인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 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온라인등록** 웹사이트 www.chpress.net 를 방문하셔서 개인정보와 교회정보를 입력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등록금**
목사·선교사: 200달러(24만원) | 평신도지도자: 200달러(24만원)
한국현지등록: 50불(6만원) (숙박제외) (*선착순 마감)
- **연락처**
NY: 노선희 전도사 TEL.(718)886-4040, FAX.(718)358-7789, sunnykapcq@yahoo.co.kr
LA: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FAX.(323)665-0046, presssj@hanmail.net
한국 등록처: 박종인 장로 (금란교회 사무국장) TEL.(02)490-7000, FAX. (02)436-5770
- 등록금 계좌번호: 하나은행 (279-910002-91105), 예금주: 금란교회, 입금자명 옆에(세마나)를 기재해 주세요.
- **항공권/관광 문의**
- 담당자: 유 여행사 (718)463-9500 / Mrs. 유Miss 진 / yootravel@hot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